기록적 폭염 대응 '시민 안전 보호' 총력

전주시, 폭염중대경보 발효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운영

전주시는 4일 윤동욱 부시장 주재로 폭염 대응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시는 연일 35℃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짐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날 오전 11시부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 2단계로 격상해 전 부서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이날 윤동욱 부시장 주재로 폭염 대응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시장은 △취약계층 예찰 활동 강화 △무더위 시간대 농업인 영농 작업 자제 홍보 △건설사업장 및 야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운영 강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부서가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이 폭염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로 살수차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474개소와 그늘막 501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 공원 바닥분수 31개소와 쿨링포그 5개소, 스마트승강장 15개소, 에어커튼 300개소, 냉열의자 666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한옥마을과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얼음을 비치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생활지원사와 방문간호사를 통해 독거노인과 의료취약계층 등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폭염 행동 요령 안내와 함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과 함께 폭염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시는 농업인을 위한 대응도 확대했다. 시는 낮 시간대 영농 작업 자제를 적극 안내하고, 마을 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 행동 요령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또, 축사 환기와 냉방시설 점검 등 폭염 피해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폭염 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양산 대여 및 부채 배부 등 생활 밀착형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과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주변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안부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강화

시민이면 자동 가입…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청구

전주시는 시민들이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하고도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시민은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보장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강력범죄상해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총 15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붕괴 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자연 재난 및 가스 사고의 사망·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강력범죄 상해 1500만 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최대 1000만 원 △익사 사고 사망 700만 원 △화상수술비 80만 원 △개 물림·부딪힘 사고 및 온열질환 진단비 각 10만 원 등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내버스 전자노선도와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BIS), LED 전자게시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등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을 반복 송출할 예정이다. 또, 종합병원과 주민센터, 구청 등 생활권 홍보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독서대전' 시민참여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9월 11~13일 '인생책 선물 책방' · '청음독서' 운영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주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회 전주독서대전'에서 시민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인 '인생책 선물 책방'과 '청음독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한벽문화관 야외전시마당에서 열리는 '인생책 선물 책방' 프로그램은 나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 인생 책을 사연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감성 교환소이다.

'인생책 선물 책방' 코너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인생 책 1권을 가져와 현장에서 제공되는 '사연 종이'에 추천 이유를 적어 전시대에 올리고, 누군가의 사연이 담긴 새로운 인생 책을 골라 갈 수 있다. 단, 다음 독자를 배려해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한 책 △수험서 및 전공 서적 △출간된 지 오래된 정보성 도서는 교환이 제한된다.

또한, 시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독서에 몰입하는 특별한 시간인 '청음독서: 끄고, 듣고, 읽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음독서'는 시민들이 추천한 독서하기 좋은 음악과 그 속에 고이 간직해 둔 소중한 사연을 만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음독서'를 통해 접수된 '시민 선곡 플레이리스트'는 뜨거운 늦여름의 열기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실내 공간 4곳(경업당, 한벽문화관 세미나실, 향교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지하 세미나실)에서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시민참여 특별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이나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생책 선물 책방'과 '청음독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제9회 전주독서대전 한정판 굿즈가 특별 혜택으로 증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제9회 전주독서대전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접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만호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은 4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주요 의견을 청취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보훈단체 현장 목소리 청취

조지훈 전주시장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지훈 시장은 4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주요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보훈단체의 주요 활동과 현황을 공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정책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보훈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현안 청취 나서

조지훈 전주시장이 장애인의 낮시간 돌봄을 책임지는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의 질적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 관리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전주지역 13개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현안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현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일선에서 장애인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는 주간 이용시설의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시설장들은 지난 25년 이상 지역사회 돌봄을 수행해 온 시설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타 시군과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종사자 처우 및 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현안을 제안했다.

이에 시는 현장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제안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만호 기자